

제 311호 · 2015년 6월 17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 정책·사업동향

1. OECD 국제운송포럼, 세계 주요 항만의 초대형선박 처리능력 및 효과 분석
2. APMT와 볼로레, 합작회사 MPS 설립해 아프리카 가나 복합운송 투자 확대
3. 아부다비, 항만 확장 계획
4. 2014/15 글로벌 3자물류시장 동향

물류시장동향

1. Pelino IV, PTPP와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항만 건설 계약 체결
2. 노보로시스크 항만, 금년 5개월간 물동량 상승세 지속

공지사항

1.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2.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3. 제9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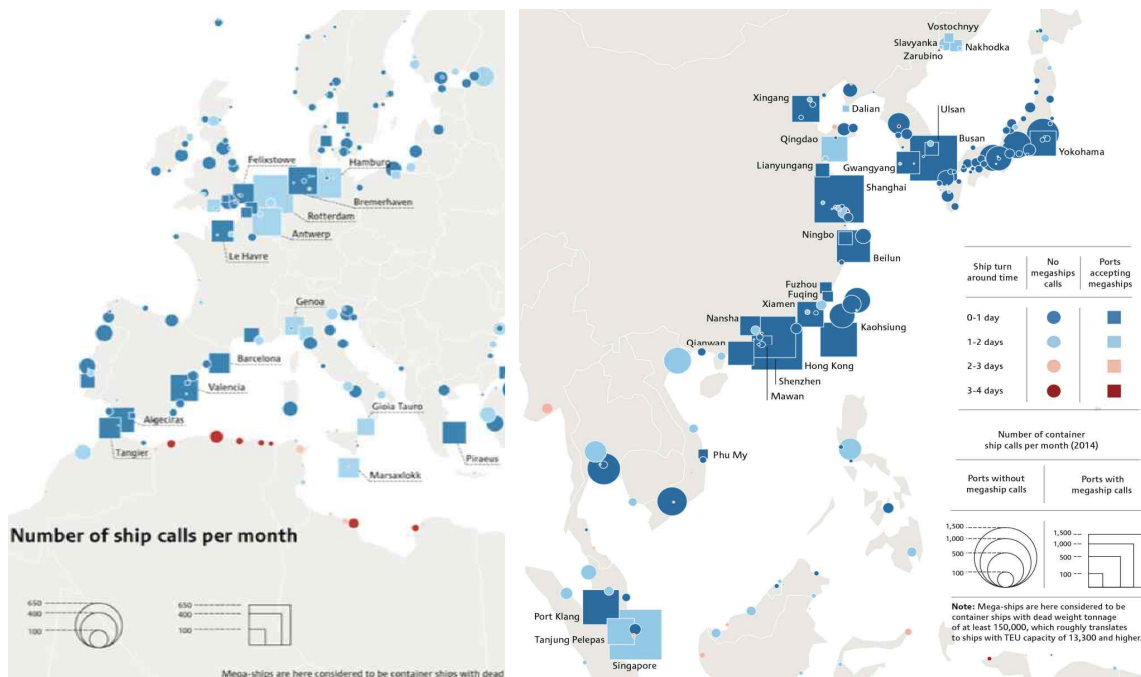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OECD 국제운송포럼, 세계 주요 항만의 초대형선박 처리능력 및 효과 분석

- OECD의 국제운송포럼(International Transportation Forum, ITF)은 최근 초대형선박의 항만 생산성 영향 및 유럽과 아시아 항만별 소요시간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초대형선박은 항만 뿐 아니라 해상항로 및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히 초대형 선박의 등장은 동서 기간항로는 물론 폭포효과(Cascading Effect)로 인해 보다 작은 해상항로의 선박 역시 기존보다 대형화되어 많은 항만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유럽 및 아시아의 일부 주요 항만들은 현재 24시간 내외에 초대형 선박을 처리하고 있으나 많은 항만들은 2일 이상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유럽 독일의 Bremerhaven, 프랑스의 Le Havre 및 영국의 Felixstowe 등은 1일 안에 초대형선박을 처리하고 있으나 Rotterdam, Hamburg, Antwerp 등은 2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아시아에서는 상하이항, 부산항, Ningbo항, 선전항 등의 항만이 초대형 선박을 1일 내에 처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탄중펠레파스 등은 2일 정도 소요되고 있음
 - 특히 상하이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항만으로 2014년에 3천 5백만 TEU를 처리하여 전년대비 200만 TEU이상을 처리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유럽과 아시아 항만의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대해지는 선박에 대응하기에는 현재의 야드공간이나 크레인 기술 등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임



자료 : The Impact of Mega-Ships, OECD ITF, 2015

- 보고서는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크레인기술의 향상, 안벽과 야드 간 조화, 선박적하계획 기술향상, 공급사슬최적화 등을 제시함
 - 선석 당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더 많은 크레인을 투입하는 것이나 선박의 길이로 인해 무작정 크레인수를 늘릴 수는 없음
 - 또다른 방법은 크레인 속도 향상, 멀티리프팅 등 크레인 기술을 향상시켜 성능을 높이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숙련된 크레인 기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함
 - 또한 크레인의 수나 성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야드와 안벽 어느 한쪽에서 정체나 유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조화를 이룰 수 있는 운영시스템 구축, 빠르고 효율적인 적하를 위한 선박적재계획, 더 나아가 외부차량 및 철도와의 연계를 고려한 최적의 공급사슬계획 수립 등이 수반되어야 근본적인 선석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자료 : www.porttechnology.org, 2015.5.29., 2015.6.3.

전형모 전문연구원 (☎ 051-797-4683, hmjeon@kmi.re.kr)

□ APMT와 볼로레, 합작회사 MPS 설립해 아프리카 가나 복합운송 투자 확대

- 세계 5대 글로벌 항만운영사 중 하나인 APMT와 최근 수년간 공격적인 투자로 약진을 거듭해온 물류기업 볼로레(Bollere) 그룹이 손을 잡고, 서아프리카의 떠오르는 물류시장인 가나에 합작회사 MPS(Meridian Port Services)를 설립해 가나의 복합운송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로이즈 리스트는, APMT와 볼로레 그룹 및 가나의 합작회사 MPS가 6월 12일 가나 정부 및 가나 항만당국(GPHA)과 가나 최대의 항만이자 수도 아크라의 관문인 Tema 항 외곽에 신항만을 건설하고, 신항만과 아크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현대화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함
 - MPS 지분 비율은 APMT와 볼로레그룹 및 가나항만당국이 각각 35%, 35% 및 30%임
- 테마 신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능력은 연간 3백50만 TEU로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항이 가능해 향후 아시아 및 유럽과의 직항 선박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테마 신항만 건설공사는 총 공사비 15억 달러를 들여 4개의 심해 선석, 방파제, 접안항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사 완료후 1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입항이 가능함
 - * 1단계 제1부두 공사는 2019년 완료 예정
 -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프리카는 아시아 및 유럽으로부터 서지중해 항만에서의 환적을 거치지 않고 아프리카로 직행하는 선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왔음
 - 따라서 초대형 선박의 수용이 가능한 테마 신항만 건설이 완료되면 아시아 및 유럽 방면으로부터의 대 아프리카 직항은 더욱 더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기존의 테마항의 2013년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약 65만 TEU로서 현재 테마항 연간 처리 능력의 최고치에 접근하고 있음
 - * 볼로레그룹은 2007년 테마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20년간 임차하여 가나에 진출했으며, 아프리카를 최대의 사업권역으로 하고 있음
- APMT와 볼로레그룹은 신항만 건설 외에 테마항과 가나의 수도 아크라를 잇는 총연장 19km의 고속도로 현대화 공사도 추진할 계획임
 - 아크라-테마 고속도로 현대화 사업은 가나 정부의 숙원 사업이기도 함
 - * 이 고속도로는 가나의 수도 아크라를 허브로 하여 테마항과 가나의 기타 지역을 연결하는 가나 최고의 고속도로로서 1970년대 초반 가나의 초대 은크루마(Nkrumah) 대통령에 의해 건설되어 가나 경제의 동맥 구실을 해왔으나 준공 이래 지난 30년 동안 현대화되지 못함)
 - * 이로 인해 도로 상태 불량 및 교통 혼잡 등을 겪어왔음
 - 공사 내용은 연결도로 및 진출입로 개설을 통한 항만과 배후지의 연결성 개선 및 왕복 6차선의 현대적인 고속도로화로서 공사비는 APMT가 조달할 예정임

1) "5 Companies interested in rebuilding Tema Motoway," *Graphic Online*, March 19, 2014 참조.

- 한편 APMT측은 테마 신항만이 향후 아프리카 농산물의 대 아시아 시장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즉 현재까지 테마항은 주로 수입 물동량 처리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아프리카의 수출 확대에 따라 해외수출 물동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IMF에 따르면, 가나는 2014년 5%의 GDP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5년 GDP 성장률은 이보다 조금 떨어진 4.5%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6년 6.4%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자료 : www.lloydslist.com, 2015.6.12.

박성준 전문연구원 (☎ 051-797-4774, sjpark@kmi.re.kr)

□ 아부다비, 항만 확장 계획

- 아부다비항만공사(Abu Dhabi Ports)가 아부다비 항만의 확장 계획을 발표했음
 - 이번 확장을 통해 10만여 개의 직 · 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2030년까지 아랍에미리트 GDP에 135억 달러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아부다비항만공사는 할리파항(Khalifa port), 자예드항(Mina Zayed port), 무사파항(Musaffah port)을 관리 ·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항만들은 전 세계 100여개 이상의 글로벌 항만들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현재 36개 이상의 정기 선사들이 기항하고 있음
- 중동의 경제 및 금융전문 언론 자우야(Zawya)에 따르면, 아부다비항만공사의 Mohammed Al Shamisi 최고 경영자는 “이번 확장은 Kizad 지역의 할리파 공업 단지(Khalifa Industrial Zone) 확충, 자예드항 시설 개선, 크루즈 터미널 건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아부다비항만의 항만물류 활동은 2014년 기준 아랍에미리트 비석유 분야 경제활동 GDP의 2.9%인 3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번 확장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비석유 분야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해 질 것”이라고 덧붙임

< 아부다비 항만 전경 >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6.9.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bora62@kmi.re.kr)

□ 2014/15 글로벌 3자물류시장 동향

- 글로벌 물류시장에서 3자물류업체 간의 경쟁은 지속적으로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미국 물류업체인 XPO 로지스틱스사가 프랑스 업체인 노어베르 덴트레상(Norbert Dentressangle)사를 인수했음
 - 또한 다수의 3자물류업체는 향후 업체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더 큰 인수합병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물류관련 컨설팅 기업인 암스트롱&어소시에이트(Armstrong&Associates)는 북미에 있는 3자물류기업이 올해의 예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을 시현했다고 발표함
 - 또한 암스트롱&어소시에이트(Armstrong&Associates)는 2014/15 글로벌 3자물류기업 순위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본 리스트에서 CJ대한통운이 약 28억 4천만 달러의 매출액으로 30위에 기록되어 있음

<2014/15 글로벌 3자물류기업 순위>

(USD Million)

순위	기업명	매출액	순위	기업명	매출액
1	DHL Supply Chain & Global Forwarding	\$32,193	26	Norbert Dentressangle	\$3,409
2	Kuehne + Nagel	\$23,293	27	Schneider Logistics & Dedicated	\$3,390
3	DB Schenker Logistics	\$19,861	28	Damco	\$3,212
4	Nippon Express	\$17,916	29	Kintetsu World Express	\$2,942
5	C.H. Robinson Worldwide	\$13,470	30	CJ korea express	\$2,842
6	DSV	\$8,661	31	Kerry Logistics	\$2,723
7	CEVA Logistics	\$7,864	32	Ryder Supply Chain Solutions	\$2,461
8	SDV (Bolloré Group)	\$7,483	33	XPO Logistics	\$2,357
9	Sinotrans	\$7,463	34	Sankyu	\$2,293
10	Panalpina	\$7,338	35	Total Quality Logistics	\$2,142
11	DACHSER	\$7,043	36	Coyote Logistics	\$1,950
12	Expeditors	\$6,565	37	BDP International	\$1,900
13	GEODIS	\$5,960	38	Wincanton	\$1,816
14	Hitachi Transport System	\$5,920	39	arvato	\$1,797
15	Toll Holdings	\$5,822	40	NNR Global Logistics	\$1,745
16	J.B. Hunt Dedicated Contract Services &	\$5,799	41	Menlo Logistics	\$1,717

	Integrated Capacity Solutions				
17	UPS Supply Chain Solutions	\$5,758	42	Americold	\$1,696
18	GEFCO	\$5,387	43	APL Logistics	\$1,659
19	Agility	\$4,300	44	Mainfreight	\$1,640
20	UTi Worldwide	\$4,180	45	Landstar	\$1,624
21	IMPERIAL Logistics	\$4,080	46	Transplace	\$1,605
22	Yusen Logistics	\$3,945	47	JSL Logistica	\$1,514
23	Hellmann Worldwide Logistics	\$3,800	48	Logwin	\$1,501
24	Hub Group	\$3,571	49	GENCO	\$1,500
25	Burris Logistics	\$3,506	50	FedEx SupplyChain/FedEx Trade Networks	\$1,462

자료 : www.supplychain247.com

- 아델란떼 SCM(Adelante SCM)의 아드리안 곤잘레스(Adrian Gonzalez)대표는 3자물류시장은 향후 “역기모형”(Barbell shaped)과 같은 구조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함
 - 시장의 역기모형 중 역기의 한쪽 끝부분에는 중·소기업과 틈새(Niche) 기업들이 번창하며, 역기의 다른 끝에는 대기업이 물류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형태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따라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나머지 기업들은 역기와 같은 모형이 되어가는 시장의 가운데로 몰려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더하여 규모의 경제(gaining scale)를 성취하고자 하는 3자물류기업의 열망은 3자물류기업 간의 M&A를 더욱 활성화 시킬 것으로 전망됨
 - 트랜스플레스의 공급사슬 컨설팅 비즈니스(Transplace's supply chain consulting business)의 브룩스 벤츠(Brooks Bentz)대표는 아드리안 곤잘레스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현재로서는 3자물류기업 간의 M&A가 줄어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
- 또한 브룩스 벤츠 대표는 많은 3자물류기업이 M&A를 통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힘
 - M&A를 진행하는 3자물류기업 간의 문화적, 지리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기업과 기업의 물류담당자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함

자료 : www.supplychain247.com, 2015.6.10.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ko@kmi.re.kr)

물류시장동향

□ Pelino IV, PTPP와 인도네시아 마카사르 항만 건설 계약 체결

- 인도네시아 국영항만공사 Pelino IV는 국영건설사 PT Pembangunan Perumahan(PTPP)와 협력해 마카사르(남부 술라웨시주) 항만에 신(新) 항만을 건설할 예정임
 - 신(新) 항만 건설은 미래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함
- 현재 동부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 및 타 국가로 운송되는 화물은 자카르타나 수라바야에 위치한 항만을 이용해야 함
 - 이는 마카사르가 제한하고 있는 화물 처리량 기준 때문임
- 현재 70만 TEU를 처리하고 있는 마카사르 항만은 신(新) 항만 1단계 개발을 통해 40만 TEU를 추가적으로 처리할 예정임
- 신(新) 항만 건설에는 총 9억 2백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되며 2030년에 운영을 개시할 예정임
 - 항만이 완공되면 350만 TEU의 물동량을 추가적으로 처리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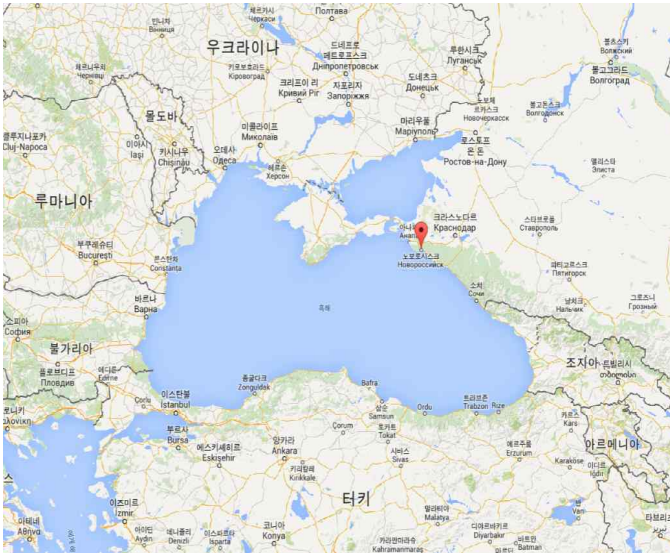
자료 : www.transportinfrastructure.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6.4

신수용 전문연구원 (☎ 051-797-4780, shinsy@kmi.re.kr)

□ 노보로시스크 항만, 금년 5개월간 물동량 상승세 지속

- 금년 5개월간 러시아 흑해연안에 위치한 노보로시스크 항만의 처리물동량이 전년대비 1% 상승함
 - 액체 벌크화물과 석유의 경우 각각 약 4,628만 톤과 3,187만 톤을 처리함
 - 철광석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1.1% 증가한 68만 1,000톤을 기록했으며, 목재는 3.7% 증가한 25만 4,000톤을 처리함
 - 컨테이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한 209만 3,000톤을 처리함

<노보로시스크 위치>



자료 : www.google.com

자료 : portnews.ru, 2015.6.11.

<노보로시스크 금년 5개월간 물동량>

구분	물동량
액체화물	4,628만 톤
석유	3,187만 톤
식물성 오일	14만 2,000톤
벌크화물	439만 1,000톤
곡물	212만 톤
화학물	46만 3,000톤
설탕	49만 6,000톤
철광석	68만 1,000톤
석탄	63만 톤
철금속 및 주철	73만 8,000톤
목재	25만 4,000톤
비금속	49만 7,000톤
신선제품	10만 4,000톤
컨테이너	209만 3,000톤

자료 : portnews.ru

김은미 연구원 (☎ 051-797-4778, usea1004@kmi.re.kr)

< 중소·중견 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 및 시장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는 **중소·중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과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기업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주된 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 포함
 -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기업

□ 대상사업

- 해외 물류시설(물류단지·센터·창고·항만·복합물류 터미널 등)의 개발·투자·운영 사업
- 해외 화물운송 및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지사·사무소 설립 사업
- 상기 관련 M&A 및 기타 해외 물류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진출희망 지역 또는 추진하려는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현지 시장정보 및 진출·투자 여건 등 기초정보에 대해 단기 컨설팅 지원
 - 현지 경제·무역·인프라·물동량 현황, 투자 관련 법·제도 등에 관해 기업이 문의 시, KMI가 보유하거나 입수 가능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해당 문의사항 관련 정보 제공
- 컨설팅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제공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해외 물류사업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공동조사(KMI 연구진과 물류기업 임직원이 동반)를 수반한 중기 컨설팅 지원
 - 필요시 해외투자 유관기관 및 현지 유관기업 관계자와의 상담 주선
 - ※ 현지 공동조사에 수반되는 출장비 등은 KMI와 해당기업이 각자 부담
- 조사 종료 후 공동조사 보고서 제공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1.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진출 상시 컨설팅 지원 신청서'(별첨 1)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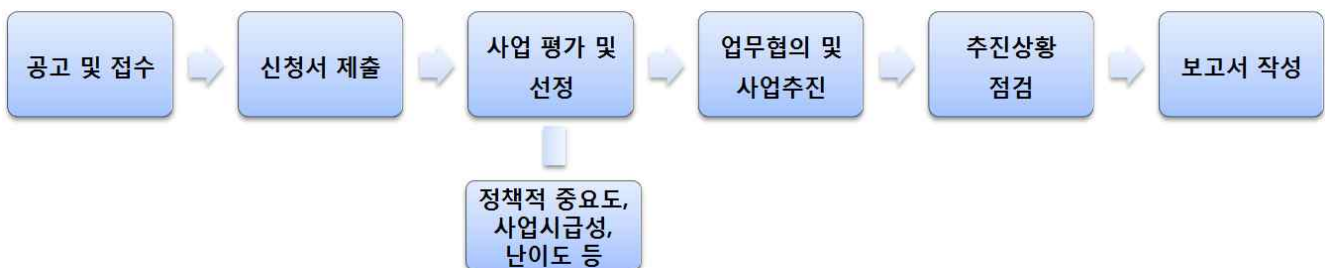
2.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해외 현지시장 공동조사 지원 신청서'(별첨 2)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신청
- ※ 담당자 : 김은우 전문연구원(hisgrace@kmi.re.kr), 손보라 연구원(bora62@kmi.re.kr)

□ 신청서 평가 및 기타

- 선정기준
 -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시급성 · 난이도, 정책적 중요도,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 · 지원
- 선정결과 발표 : 신청서 접수 후 2~3주 이내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은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김은우 051-797-4772 / 손보라 051-797-4781)로 문의
-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사업 추진절차



<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 공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및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증계획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7일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신청기간

2015년 4월 17일(금) 09:00 ~ 2015년 7월 31일(금) 18:00

2. 신청자격

「항만법」 제2조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

*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장별로 인증 신청

3.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사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내 인증계획 공고문 및 별첨자료 참조

4. 문의처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은미 연구원(051-797-4778, usea1004@kmi.re.kr)

김주혜 연구원(051-797-4779, joohye915@kmi.re.kr)

< 제9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

- 일시 : 2015. 7. 3(금), 14:00 ~ 17:4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프로그램

시간	주요내용
13:30~14:00	등록 및 자료 배포
	개회식
14:00~14:05	개회사 ■ 김성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14:05~14:10	환영사 ■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1세션
14:10~14:40	극동러시아 보스토치니 다용도 터미널 개발 프로젝트 ■ 임재인 KSH 수석 부사장
14:40~15:00	질의 · 응답
15:00~15:30	극동러시아 선도개발구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 ■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15:30~15:50	질의 · 응답
15:50~16:05	네트워킹
	2세션
16:05~16:35	한중 FTA 시범도시, 중국 연태시 물류분야 개발 프로젝트 ■ 연태시 정부 관계자
16:35~16:55	질의 · 응답
	3세션
16:55~17:15	2015년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지원사업 소개 ■ 김은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17:15~17:30	질의 · 응답
17:30~17:40	종합정리 및 폐회 ■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연구실장

* 동시통역제공

○ 참가신청 : 2015년 6월 3일(수)~7월 2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nelt.or.kr/seminar/view?seq=24>
- 또는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bora62@kmi.re.kr, jsko@kmi.re.kr)로 송부

○ 참가문의 : 손보라 연구원(☎ 051-797-4781, bora62@kmi.re.kr)

고재성 연구원(☎ 051-797-4776, jsko@kmi.re.kr)

※ 본 사업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반드시 사전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192 (☎ 02-6050-3114)

- 지하철 2호선 : 시청역 9번 출구 5분거리
- 지하철 1호선 : 서울역 3번 출구 5분거리
- 지하철 4호선 : 회현역 5번 출구 5분거리



『제9회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서

■ 참가자 정보

회 사 명	
-------	--

참가자명(1)		직 위	
부 서		이메일	
전화(사무실)		전화(휴대폰)	

참가자명(2)		직위	
부 서		이메일	
전화(사무실)		전화(휴대폰)	

※ 참가자가 더 있을 경우 칸을 만드셔서 참가자 정보를 기재 바랍니다.

※ 기타 : 참가비 무료, 선착순 접수

※ 참가를 희망하실 경우 동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 2015.7.2(목) 18:00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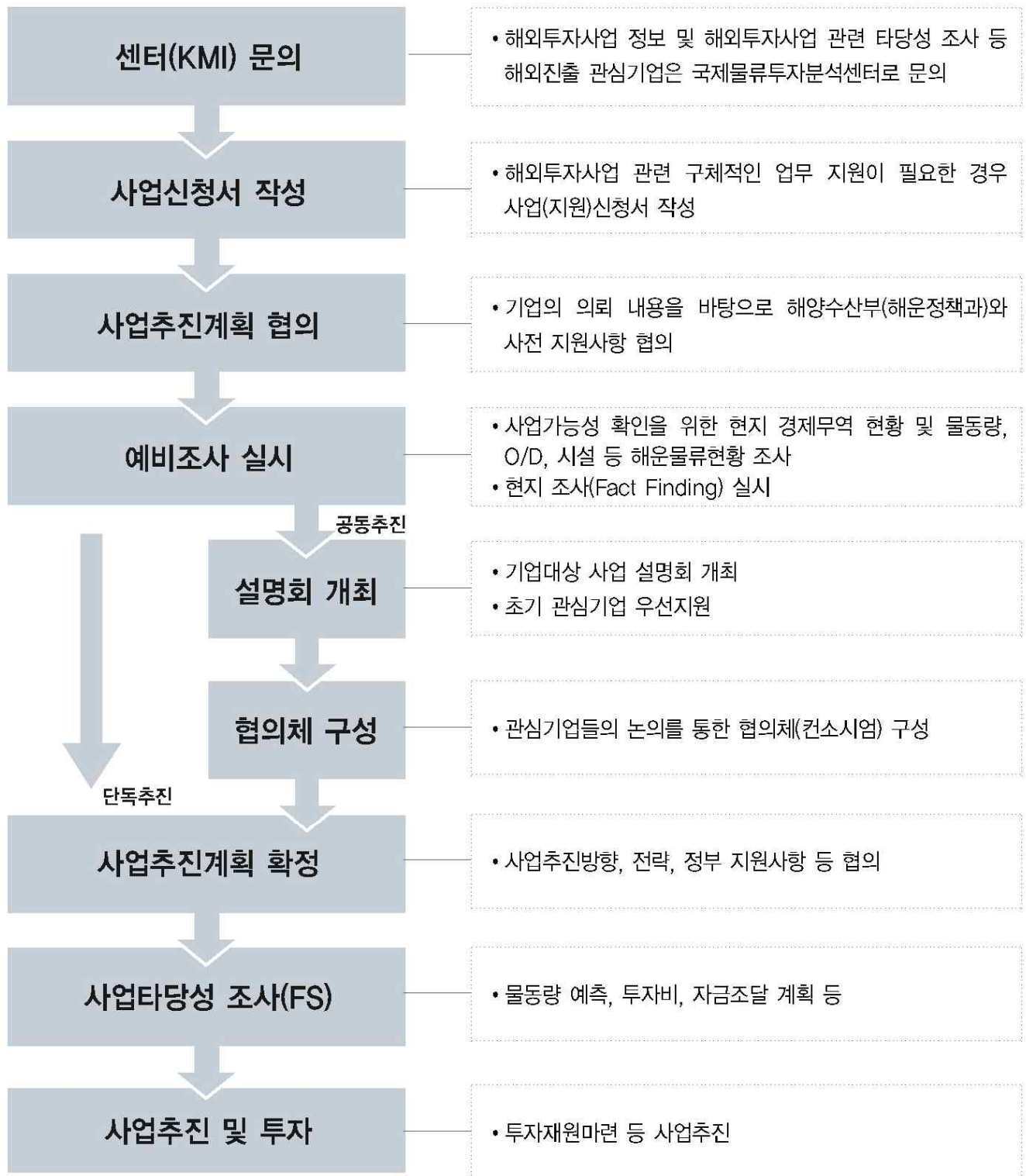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신청서 송부방법 : E-mail (bora62@kmi.re.kr, jsko@kmi.re.kr)

※ 문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한 국 해 양 수 산 개 발 원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